

Meritz 통신서비스 Weekly



통신/미디어
Analyst 정지수
02. 6098-6681
jisoo.jeong@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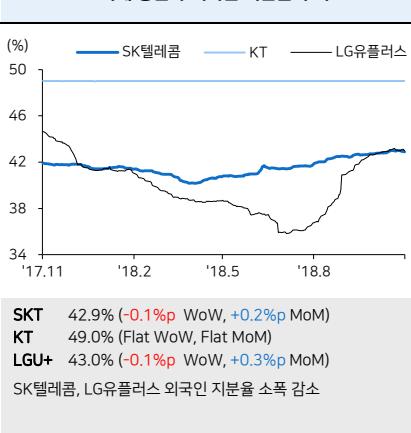
2018.11.05

1

주가 현황

	수익률(%)				P/E(x)		P/B(x)		배당수익률(%)		국내 통신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
	1W	1M	3M	6M	2018E	2019E	2018E	2019E	2018E	2019E	
KOSPI	3.4	-7.6	-8.4	-14.8	8.7	8.7	0.9	0.9	2.2	2.2	
통신업종	-4.7	-7.0	-0.2	10.3	7.5	7.5	0.9	0.9	3.6	3.6	
SK텔레콤	-6.4	-7.9	0.2	11.7	6.1	6.4	0.9	0.8	4.0	4.0	
KT	-2.0	-3.4	-1.5	4.0	10.4	10.3	0.6	0.6	3.7	3.9	
LG유플러스	-3.6	-7.4	0.6	25.7	12.5	11.7	1.1	1.1	2.7	2.9	
AT&T	4.9	-10.6	-5.4	-5.0	8.7	8.5	1.2	1.2	6.6	6.7	
Verizon	2.0	2.9	8.3	17.5	12.1	12.0	4.3	3.6	4.2	4.3	
T-Mobile	5.2	-0.6	11.3	19.6	20.8	17.3	2.3	2.0	0.0	0.0	
Sprint	7.4	-4.0	11.6	18.8	32.3	122.9	1.0	0.9	0.0	0.0	
NTT Docomo	-12.2	-15.2	-11.8	-8.5	12.9	12.8	1.6	1.5	3.9	4.3	
KDDI	-15.0	-19.2	-21.4	-17.1	10.2	9.3	1.5	1.4	3.8	4.2	
Softbank	0.8	-22.3	-5.8	2.5	8.7	12.0	1.8	1.6	0.5	0.5	
China Mobile	1.4	-2.1	6.9	1.4	11.6	11.5	1.3	1.2	4.2	4.3	
China Unicom	-2.2	-5.8	-10.4	-19.9	26.9	17.0	0.7	0.7	1.5	2.3	
China Telecom	-1.8	-2.1	5.0	1.1	13.3	12.3	0.8	0.8	3.1	3.3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2

업종 코멘트

전주 동향

10월 넷째주 통신업종 주가지수는 KOSPI 대비 -8.1%p 수익률을 기록하며 Underperform 국내 증시 반등에 따른 통신주 투자 매력도 하락과 전반적으로 부진한 3Q18 실적 발표가 주요인 한편, 일본 통신주 주가는 자민당 후보의 통신비 40% 절감 공약으로 인해 -10% 이상 급락 국내 기관은 KT 순매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순매도, 외국인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순매도

금주 전망

금주는 정부가 단말기 제조사들과 완전자급제 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작업 개시 과기정통부, 이번 주 개별 단말기 제조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자금제폰 출시 등 타진 예정 이어 별개로 국회 과방위 소속 김성태 의원은 6일 완전자급제 2.0 제정법 발의 계획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 규제 이슈와 더불어 주가 측면에서는 향후 외국인 지분율 방향성 변화에 주목

★ 통신업종 캘린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28	29 과방위 총합감사 (방통위 대상)	30 SK텔레콤 3Q18 실적발표	31	1 LG유플러스 3Q18 실적발표	2 KT 3Q18 실적발표	3
4	5	6 김성태 의원, 완전자급제 2.0 법안 발의 계획	7 CI헬로 3Q18 실적공시	8	9	10

3

주간 뉴스

▶ KT, 딜라이브 인수위한 단독실사 마쳐

(매일경제)

- 1일 IB 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달 딜라이브 인수 관련 실사 작업을 마치고 최종 결정 단계 돌입
- 대주주인 채권단은 향후 거래 조건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연내 매각을 성사시키겠다는 의지
- 인수 성사시, SK브로드밴드(점유율 13.65%)와 티브로드(10.24%)의 추가적인 행보에 주목
- ⇒ KT는 케이블TV 인수에 대해 결정된 사안이 없다고 설명. 스카이라이프 역시 실사 사실 부인
- ⇒ 다만 케이블TV 시장의 정체된 성장을 고려하면, 인수에 대한 유인은 충분하다고 판단

▶ 노옹래·시민단체, 선택약정 할인율 25→30% 제안

(Newsis)

- 노옹래 과방위원장과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선택약정 할인율을 30%로 상향할 것을 주장
- 이에 앞서 11월 국회에서 보편요금제와 분리공시제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
- 이 밖에, 징수한 주파수 경매대금을 통신비 인하에 사용할 것, 단말기 요금 폭리 해결 등을 요구
- ⇒ 그러나 신규 저거요금제 감안 시 보편요금제 등 규제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
- ⇒ 특히, 10월 국감에서는 완전자급제 이외의 별다른 규제 이슈가 부각되지 않은 상황

▶ KT 10기가 인터넷에 '맞불' SKB "우리도 한다"

(디지털데일리)

- KT 간담회가 끝난 후 SKB 역시 내달 10기가 인터넷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입장 표명
- 현재 3개 아파트단지에서 10기가 인터넷 시범 제공 중. 이를 상용화 서비스로 확대하겠다는 방침
- SKB의 10기가 인터넷의 요금제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며, 현재 약관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
- ⇒ 한편, LG U+는 현재 경쟁사 수준의 기술을 확보했으며, 적절한 시점에 상용화하겠다는 계획
- ⇒ 통신3사의 유선망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관련 통신장비 업체들에게도 수혜가 이어질 전망

▶ 5G 조세감면 이뤄지나…법안 잇달아 발의

(ZDNet Korea)

- 정성호 의원은 5G 이동통신망 등의 조기구축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 해당 법률안에는 번재일 의원,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등 과방위 소속 의원들도 참여
- 5G 활성화를 위한 조세감면 법안은 지난 5월 기자회의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데 이어 두 번째
- ⇒ 유영민 장관은 국감에서 5G의 세제혜택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언
- ⇒ 법안 통과 시 5G 네트워크 관련 투자가 증가하고, 따라서 관련 통신장비 업체들에게 수혜 예상

▶ SKT, 올해 말 와이브로 서비스 종료…LTE 전환 지원

(한국경제)

- SK텔레콤은 올해 말까지 와이브로 서비스를 종료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협의를 시작
- LTE 등 대체 기술 진화, 와이브로 단말/장비 생산 부족 등으로 인해 서비스 유지가 어렵다는 판단
- SK텔레콤은 와이브로 서비스 종료에 앞서 LTE 전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 2년간 운영 계획
- ⇒ 현재 SK텔레콤 와이브로 가입자 수는 1만7,000명 수준. 무선 매출에 악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 ⇒ 해당 주파수를 5G 등 다른 서비스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이벤트라고 판단

▶ 구글, LG유플러스와 협업…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추진

(ChosunBiz)

- 1일 IT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LG유플러스와 IDC 입주를 위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진 상황
- LG유플러스가 소유한 IDC의 공간을 임대해 그 안에 구글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는 방식
- 구글은 평촌 메가센터 및 가산디지털센터와 종소 IDC 3곳을 활용해 서울 리전을 운영할 방침
- ⇒ 해당 이슈와 관련해서 구글과 LG유플러스 측 모두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 표명
- ⇒ LG유플러스의 IDC 사업에 긍정적 이벤트. 다만 전자 매출 대비해서는 제한적인 영향 예상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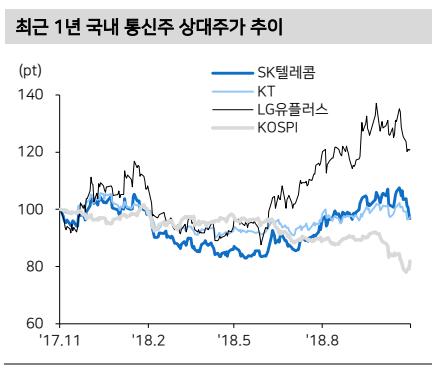
주요 지표

(집약달리)	종가 (통화)	시가 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EBITDA		EV/EBITDA (배)		ROE (%)		
			2018E	2019E	2018E	2019E	2018E	2019E	2018E	2019E	2018E	2019E	2018E	2019E	
한국	SK텔레콤	257,500	18.6	14.9	15.4	1.2	1.3	3.0	2.7	4.0	4.2	5.6	5.4	17.3	14.0
	KT	28,800	6.7	20.9	21.2	1.2	1.2	0.6	0.7	4.2	4.3	2.6	2.5	5.9	5.7
	LG유플러스	16,150	6.3	10.8	11.1	0.8	0.8	0.5	0.5	2.2	2.4	3.8	3.6	10.0	9.6
미국	AT&T	30.5	222.1	173.1	185.4	31.5	35.3	23.8	26.1	56.0	59.9	7.1	6.6	14.4	14.7
	Verizon	56.6	234.0	130.9	132.1	29.3	30.8	18.8	19.7	47.4	48.5	7.3	7.1	38.8	33.2
	T-Mobile	68.5	58.1	43.2	45.3	5.4	5.9	2.8	3.3	12.2	12.9	7.2	6.8	11.9	12.6
	Sprint	6.3	25.6	32.4	33.0	2.6	2.6	5.5	0.2	11.1	12.7	5.2	4.5	14.1	0.4
일본	NTT Docomo	2,535	84.7	44.2	43.0	9.1	9.0	6.7	6.3	13.9	13.7	6.0	5.8	12.6	12.3
	KDDI	2,410	53.9	45.8	45.7	9.0	9.1	5.3	5.5	14.1	14.1	4.8	4.6	15.6	15.8
	Softbank	8,699	84.6	83.8	84.1	11.6	12.7	9.9	6.8	25.0	25.4	9.4	9.0	22.0	13.0
중국	China Mobile	74.1	193.8	108.0	110.7	17.3	17.2	16.6	16.8	40.1	41.0	3.1	3.0	11.4	10.9
	China Unicom	8.5	33.4	41.0	43.2	1.3	2.3	1.2	1.9	12.5	13.3	2.7	2.6	2.7	4.2
	China Telecom	3.8	39.1	54.8	56.9	4.2	4.5	2.9	3.1	15.2	15.7	3.2	3.0	6.1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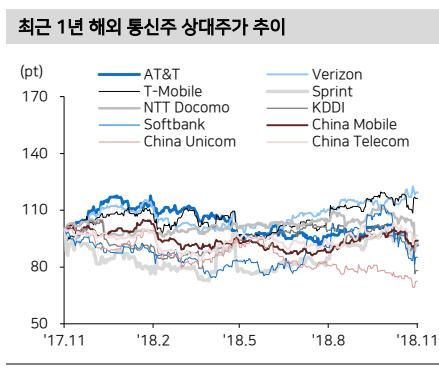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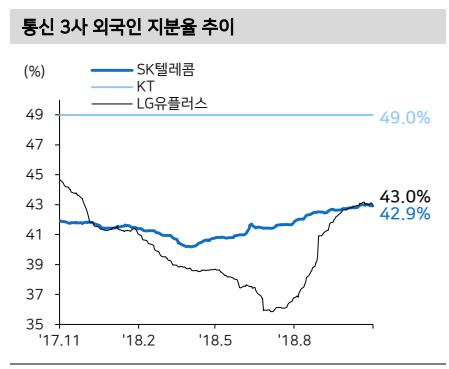
주요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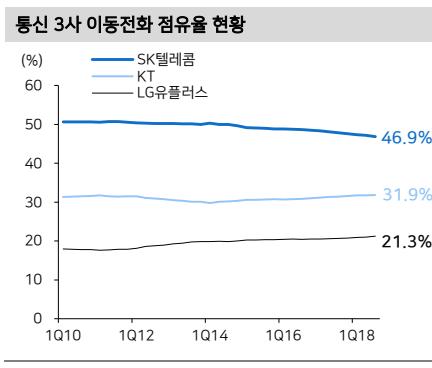
자료: WiseF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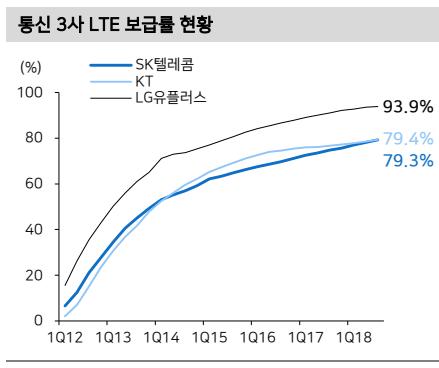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자료: WiseF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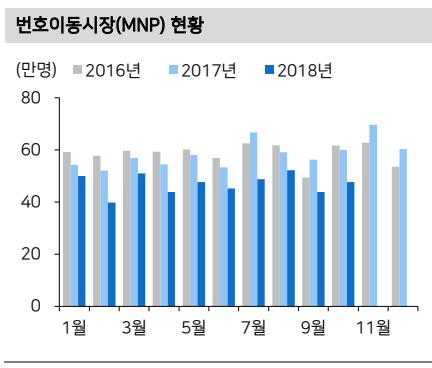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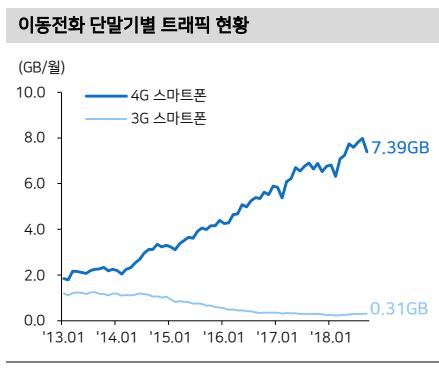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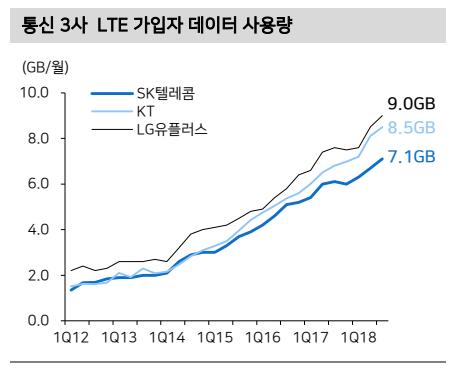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 각 사

Compliance Notice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시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11월 5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O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는 2018년 11월 5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11월 5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정지수)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